

슈미드 캔자스시티 연은 총재: 농업 부문 양극화 속 정책 긴축 강화 필요성 강조

2026.08.05 · AI Engineer 조재운 jaeun.jo@daishin.com

캔자스시티 연은 총재 슈미드가 캔자스시티 연은이 주최한 행사에서 농업 경제를 주제로 발언했다. 특정 금리 인상·인하 시점을 언급하지는 않았고, 기준금리 수치도 원문에 등장하지 않아 원문 미명시로 처리한다.

연설은 관할 지역 농업 부문의 양극화를 짚었다. 곡물 재배 농가는 낮은 곡물 가격과 높은 생산비 부담이 겹쳐 어려움을 겪는 반면, 축산 농가는 가격이 기록적으로 오르며 정반대 흐름을 보이고 있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관할 지역 내 약 650 개 커뮤니티 은행이 농업 관련 대출에 얼마나 노출돼 있는지 계속 점검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연설 말미에서 슈미드는 현재 정책 기조가 충분히 제약적이지 않다고 평가하며, 인플레이션을 2%로 낮추려면 긴축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매파적 견해를 명시적으로 밝혔다. 다만 지역 신용 부실 우려와 구조적 조정이 필요하다는 인식은, 최근 연방공개시장위원회 표결이 만장일치에서 9 대 3 으로 갈린 배경 — 즉 인상에 신중한 소수 의견의 논리적 기반을 이해하는 데 참고할 만한 대목이다. 슈미드 본인의 결론은 매파 쪽에 서 있어, 위원회 내 다수 의견과 궤를 같이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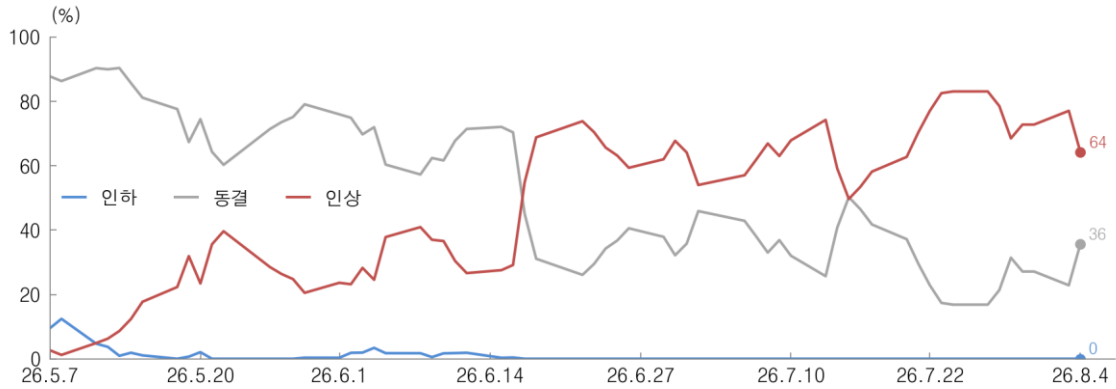
과거와 비교 (같은 분류 최근 분석)

발행일	핵심 메시지
2026-08-04 (이번)	Schmid 연설은 직접적 정책신호는 제약적이나 Kansas City Fed 지역의 극심한 양극화 강조로 금리 인상 신중론의 정책적 근거를 간접 제시하며, 12-0 만장일치에서 9-3 분열로 악화된 배경을 설명하는 신호로 작용했다.
2026-07-31	Hammack 은 기준금리 3.75%가 충분히 제한적이지 않다며 즉각적 인상을 주장했으며, 5 년 이상 지속된 고인플레이션과 광범위한 가격결정 압력을 근거로 인상의 긴급성을 강조했다.
2026-01-12	Williams 는 무역정책 불확실성 속에서도 경제의 회복력을 강조하며, 인플레이션 피크가 2026 년 상반기라 전망하고 타락 영향을 제한적으로 평가했다.
2026-01-14	연설 본문이 미제공되어 정책 입장 분석이 불가능했다.

슈미드 총재 연설: 농업 양극화와 정책 기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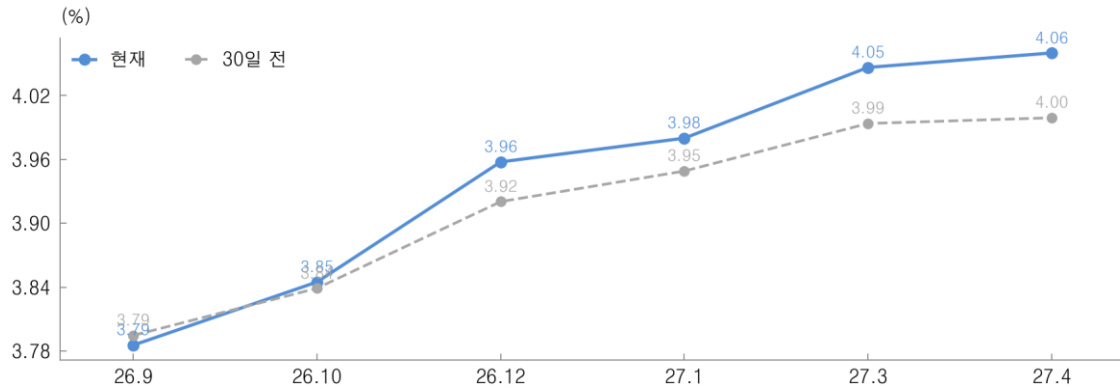
항목	내용	입장/톤
곡물 생산	저가격 + 높은 생산비 겹침	어려움 강조
축산업	기록적 가격 상승	강세 (곡물과 대조)
부문 양극화	지역 경제 극심한 편차, 신용 리스크	우려
지역 금융	650 개 은행의 농업 신용 노출	점검 강화
정책 평가	현 정책 제약적 부족, 긴축 강화 필요	명시적 매파
FOMC 분열	9-3 투표 (구조적·신용 우려 배경)	신중론 근거

차기 FOMC(9 월 16 일) 정책금리 확률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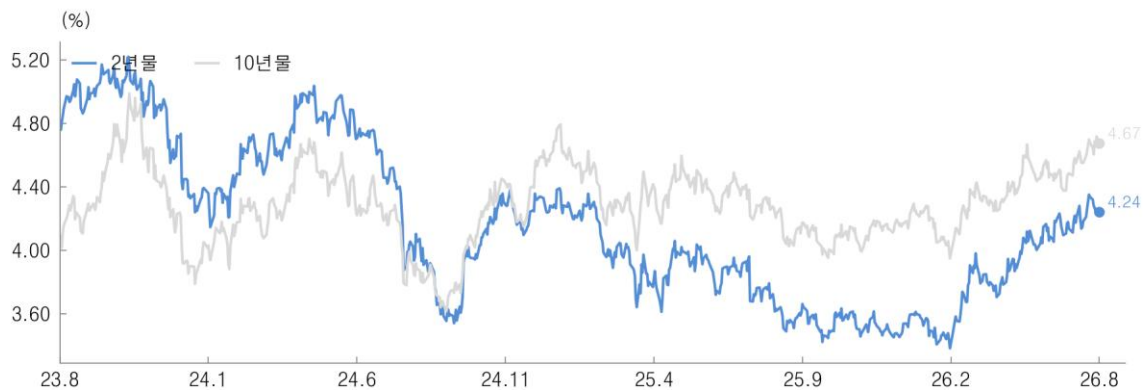
자료: 하우스 FedWatch(연방기금선물 자체산출·CME 백필),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FOMC 회의별 내재 정책금리 — 현재 vs 30일 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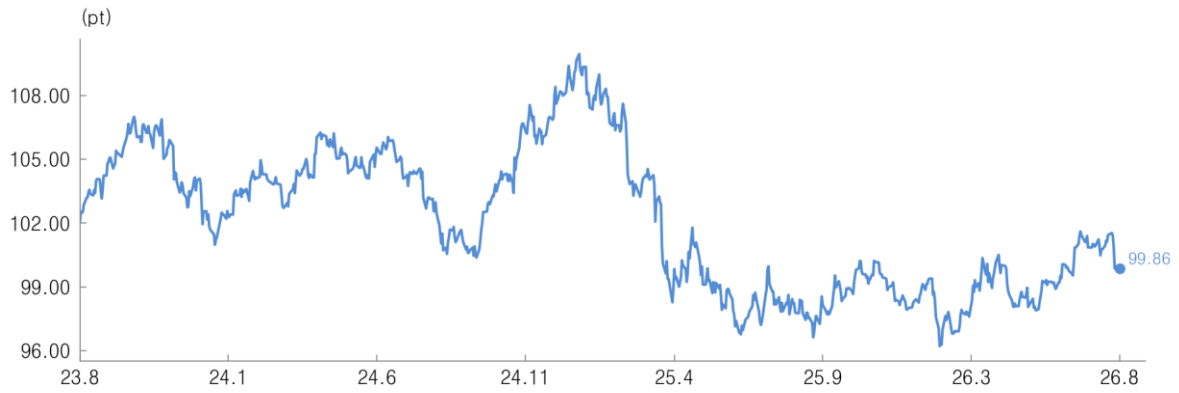
자료: 하우스 FedWatch(연방기금선물 자체산출·CME 백필),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미국 국채금리 (2년·10년) 3년



자료: LSEG,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달러지수(DXY) 3 년



자료: LSEG,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Compliance Notice

금융투자업규정 4-20 조 1 항 5 호사목에 따라 작성일 현재 사전고지와 관련한 사항이 없으며, 당사의 금융투자분석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자료에 관련하여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당사는 동 자료에 언급된 종목과 계열회사의 관계가 없으며 당사의 금융투자분석사는 본 자료의 작성과 관련하여 외부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을 받지 않고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였습니다. (담당자:조재운)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Research Center 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동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자료는 인공지능(AI)을 활용하여 자동 생성되었으며, 투자 권유를 목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AI 생성 특성상 오류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